

## 危機의 哲學 哲學의 危機 (二)

鄭璣

以上으로 小論의 全概念은 漠然하나마 推定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것만으로도 責任 謀免의 口實은 되는 것입니다. 이진 그럴상 싶은 것이 概念의 生命이 곧 普遍妥當性이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概念은 全體요 大意요 本意요 輿論입니다. 그리고 概念은 곧 哲學입니다. 哲學 卽 概念입니다. 그러나 저와 같이 이미 歸納된 바 概念을 再演繹하여써 概念이란 卽 哲學이란 若此한 것이라는 것과 概念의 種子인 具體를 展開하므로써 이 現實과 哲學과의 關係를 陳述하고자 함이 小論의 本意이겠습니다.

全體를 綜合한 것이 곧 概念이요 이른바 哲學이요, 이것의 再演繹이 곧 特殊요, 이른바 現實입니다. 하늘의 별만 치어다 보고 건일다 물구덩이에 빠진 哲學者 「타레스」는 哲學의 始祖입니다. 工巧롭게도 이런데서 世上은 推測컨대(아마 哲學이나 哲學者란 畢竟 이런 것이겠구나)하고 實地로 誤解, 妄認하는 일도 많으며 또한 쉬운 일입니다. 이것은 類推의 所果입니다. 나는 이 類推之法으로 世間의 心中을 구태여 「現實」을 믿지 않고 推測한 것입니다. 卽 그들 사람 사람을 直接 對面하여 所意를 묻지 않고 卽 現實的인 證據를 不撓하고도 같은 사람인즉 누구를 勿論하고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이 있고, 普通妥當性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萬若 그 本人에게 가 直接或은 拷問(此外 事實로 法權者가)한다면, 그는 良心을 自曲하여 外言만으로도 그렇지 않다고 絶對 否認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곧 現實的 現象입니다. 또한 그 現實은 그의 發言에 不應치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現實입니다. 거짓입니다. 非普遍妥當的이고 虛僞的입니다. 그러나 前者에 限해서는 비록 表言치 않으나 良心과 良心과의 相對이니, 여기는 벌써 現實이 아닌 그리고 現實 以前의 境涯입니다. 이 境涯인즉 萬有의 本然相 그대로인 고장이니 「프라톤[플라톤]」의 命名을 비롯하여 그 뒤의 數多 哲學者들도 이 境涯를 名稱, 일흠해왔었으니, 그 名稱은 마치 그네들의 姓名과 같이 비록 多□□하였으나 結局 한 사람에게 名多한 것과 같아서, 或者는 觀念의 世界, 理想의 世界, 超經驗, 超現實 或者는 觀念의 世界라고 或者는 理念의 世界라고도

일함했으나, 이것은 畢竟 概念의 世界 卽 哲學的 境涯이었던 것입니다.

여기는 □□-「現形」 以前の 根本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의 根本體가 人間의 □□□□으로 해서 卽 人間의 侵犯을 □□해야 掠型的으로 變態되어 이른바 退步, 墮落까지 된 그 具體例는 오늘의 醫術에서 이미 본 바입니다. 모두가 이에 準하여 오늘의 現實은 저와 같이 이른바 哲學的 境涯에서 脫出해 나온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일즉이 哲學的 境涯 卽 現實이든 理想郷이 아닌 오늘의 現實에도 醫術은 仁術이라는 名目 많은 殘存해 있듯이, 依然히 哲學其 自體 卽 本理念 많은 實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이 境涯에 있어서 (만) 哲學의 가장 親密한 동무는 現實입니다. 우리의 現實이 消滅될 때는 우리의 哲學은 同時에 消滅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哲學이 生死를 같이 할 唯一無二의 동무라고는 實로 오직 現實이 있을 뿐입니다. 물과 고기에 비길 배 아니지요. 우리의 哲學, 우리의 現實을 無視하고는 있을 수 없습니다. 哲學이 現實을 無視하는 날 곧 哲學이 自滅하는 날입니다. 哲學은 特殊에 對한 普遍이며, 現實은 普遍에 對한 特殊입니다. 普遍은 特殊를 通하여 나타나듯이 哲學은 늘 現實을 依據하여 顯現됩니다. 哲學은 一, 그것이고 現實은 二, 그것입니다. 特殊가 없는 普遍은 없으며, 普遍은 이미 特殊 그것이듯이 現實이 없는 哲學은 있을 수 없는 것이며, 哲學은 그것이 벌써 現實이라는 것을 雄辯하고 있는 것입니다. 哲學과 現實은 如斯히 不可離의 相關關係에 있습니다. 一切萬有는 佛性의 所具者며 萬人은 哲學者이라는 듯이 現實 그것은 한 개의 커다란 哲學者인 것입니다. 現實은 如實히 哲學을 講說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內然 狀態를 調和시키고 綜合, 歸納하는 天□을 所持한 建設者이며 哲學입니다.